

KDC 역사보조학 분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s of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Field in the KDC 5th Edition

이 창 수(Changsoo Lee)**

〈 목 차 〉

I. 서론	III. KDC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 분류표상의 분류체계	1. 고고학과 유물유적의 통합
1. 고고학과 유물유적의 분류	2. 고문서학과 고문서의 통합
2. 고문서학과 고문서의 분류	3. 기록학과 문헌정보학의 완전한 통합
3. 기록학의 분류	4. 성씨와 그 족보의 통합
4. 계보학과 계보자료의 분류	5. 총진 분류의 명확화
5. 전기(傳記)와 전기적 자료의 분류	IV. 결론

초 록

KDC 제5판의 역사보조학 중 고고학, 고문서학, 기록학, 계보학, 傳記 분야는 분류체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첫째, LCC, DDC, KDC, NDC, UDC, CLC를 대상으로 역사보조학 분야를 비교분석하여 KDC의 개선을 위한 착안점을 파악하고, 둘째, 도서관현장에서의 KDC를 사용한 분류 실태를 조사하여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셋째, 파악된 착안점을 참작하여 KDC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고고학, 고문서학, 기록학, 계보학, 분류체계, 역사보조학, 전기, 한국십진분류법

ABSTRACT

Among the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field in the KDC 5th edition, several classification system problems are found with the fields of Archaeology, Diplomatics, Archival Science, Genealogy, and Biograph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ir improvements.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field of LCC, DDC, KDC, NDC, UDC, CLC.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of KDC in the library field to diagnose several application problems.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the improvements of KDC were suggested.

Keywords: Archaeology, Archival science, Auxiliary science of history, Biography, Diplomatics, Genealogy, 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sl@knu.ac.kr)

• 논문접수: 2013년 7월 16일 • 최초심사: 2013년 8월 29일 • 게재확정: 2013년 9월 4일

I. 서론

역사학 연구에 있어서 사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여 설득력 있게 서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조학의 뒷받침이 따르게 마련이다. 역사연구법에 있어서 인간생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면 철학, 문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등의 일반적 보조학이 필요하게 되며, 사료를 정리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실제적인 기술적 지식인 특수 보조학으로서 언어학, 書體學, 印章學, 고화폐학, 계보학, 紋章學, 고고학, 지리학 등이 필요하게 된다.¹⁾ 여기서의 일반적 보조학은 물론 특수 보조학 중에서도 언어학, 고고학, 지리학 등은 오늘날 완전히 독립된 학문으로 존재한다.

정보자료의 분류표에 있어서도 역사보조학은 역사학과 함께 전개되거나 인접되게 배정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LCC(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의 경우 역사류(D, E, F)에 앞서 C(Auxiliary Sciences of History)류에 별도로 모아서 배정하고 있다. LCC C류에는 문명사, 고고학, 고문서학, 기록학, 인장학, 연대학, 曆法, 고화폐학, 碑銘學, 금석학, 문장학, 계보학, 傳記 등이 포함되어 있다.²⁾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보조학에 속하는 학문이 다양하게 많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서관현장에서 비교적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고 분류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수반되는 고고학, 고문서학, 기록학, 계보학, 傳記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분류표인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³⁾의 경우 고고학과 유물유적이 분리되어 있고, 고문서학과 고문서류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양과 주요 3개국 이외의 고문서류를 분류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고, 기록학 일반을 분류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류항목이나 주기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현장에서 024.91 또는 020에 교착분류하거나 기록학의 세부영역을 구분 없이 기록학 일반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또한 성씨와 그 족보가 분리되어 있어서 분류작업의 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이용자로 하여금 성씨와 그 관련 족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傳記에서 총전과 각전의 구분을 위한 기준이 분류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도서관 현장에서 혼선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요 분류표에서 분석 대상 보조학과 그 관련 자료와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KDC의 개선을 위한 착안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현장

1)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20(서울 : 東亞出版社, 1983), p.576.

2)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2008 ed.(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2008)

3) KDC 제6판의 출판을 앞두고 있으나 논문 투고 이후 현 시점까지도 역사보조학 분야의 전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 논문의 전개는 KDC 제5판의 개정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에서의 KDC를 사용한 분류 실태를 조사하여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셋째, 주요 분류표의 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착안점을 참작하여 KDC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LCC,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 KDC, NDC(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日本十進分類法), UDC(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CLC(Chinese Library Classification, 中國圖書館分類法) 등의 주요 분류표에서 분석 대상 보조학과 그 관련 자료와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도서관현장에서의 KDC를 사용한 분류 실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OPAC을 검색하여 파악하였다.

KDC 제5판의 분야별 개정과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로는 의류학⁴⁾, 기초법학⁵⁾, 한국음악⁶⁾, 건축학⁷⁾, 통계학⁸⁾ 등 다수가 있지만 역사보조학 분야에 대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Ⅱ. 분류표상의 분류체계

1. 고고학과 유물유적의 분류

LCC에서는 고고학의 일반적인 저작은 역사보조학을 모아 놓은 C류의 하위류인 CC에 분류하도록 배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의 유물유적은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 아래에, 선사시대 고고학은 인류학 아래(GN700+)에, 산업고고학은 기술일반 아래의 T37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⁹⁾ 그리고 CC의 고고학의 일반적인 저작은 고고학의 철학 및 이론(CC72-81), 연구와 지도법(CC83-97) 등 DDC의 표준구분에 해당하는 내용, 유물유적의 보존·보수·관리(CC135-137)·위조문제(CC140), 종 및 鑄鐘術(CC200-260), 십자가像(CC300-350), 경계석(CC600-605), 돌무덤(CC700-705), 지상 그림(CC710), 죽음의 랜턴(등근 탑)(CC960)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⁰⁾

DDC의 경우 고고학에 대한 학제적인 저작과 선사시대 고고학은 고대사 아래의 930.1에 분류하

4) 김정현,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의류학 분야의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12. 9), pp.101-120.

5) 김자후, “KDC 5판 기초법학 부문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12), pp.5-22.

6) 한경신, “한국십진분류법 한국음악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12), pp.297-316.

7) 여지숙, 공성훈, 오동근, “KDC 제5판 건축학 분야 전개의 개선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2호(2013. 5), pp.359-376.

8) 박재혁, 김비연, “통계학의 학문적 특성에 따른 KDC 문헌분류의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3. 6), pp.399-422.

9)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p.7.

10) *Ibid.*, p.vii.

고, 산업고고학은 기술의 역사(609)에, 특정 해양과 바다의 고고학은 세계사 아래의 909.0963 - 909.0967에, 특정한 대륙이나 국가나 지역의 고고학은 해당 고대사(931-939) 또는 해당 역사(940-990) 아래에 분류하도록 하였다.¹¹⁾

KDC의 경우에는 고고학의 일반적인 저작은 역사보조학 아래의 902.5에, 일반적인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은 세계사 아래의 909.1에, 동서양이나 각국의 고고학은 해당 역사 아래(예: 동양고고학 910.025, 서양고고학 920.025, 한국고고학 911.0025, 중국고고학 912.0025, 일본고고학 913.0025)에 분류한다. 그리고 시대 또는 지역별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고고학적 유물유적은 해당 하는 시대나 지역의 역사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예: 낙랑시대의 유물 911.023, 영남지방의 패총에서 발굴된 유물 911.8). 한편으로 KDC 4판과는 달리 5판에서는 금석학(902.54)과 錢貨學(902.56)을 고고학에 포함하여 전개하였다.¹²⁾

NDC의 경우에는 역사보조학 아래의 202.5에 고고학 일반, 선사학과 지역이나 시대를 한정하지 않은 유물유적에 관한 저작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한 지역이나 시대의 유물유적에 관한 것은 그 지역이나 시대의 역사에, 개개의 유물유적에 관한 것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역사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원시인은 469.2에, 산업고고학은 602에, 미술고고학은 702.02에 분류하도록 배정하였다. 일본의 고고학 전반에 관한 것은 일본사의 역사보조학 아래의 210.025에, 특정지역에 관한 것은 지역사(211-219) 아래에, 개개의 유물유적에 관한 것은 일본사의 해당 시대사(별법: 지역사)에 분류하도록 하였다.¹³⁾ 한편으로 NDC 10판 검토시안¹⁴⁾에서는 일본의 고고학 전반에 관한 것도 시대를 특정하지 않은 것만 210.025에 분류하고 시대가 뚜렷한 것은 그 시대의 역사에 분류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특정한 지역 전반과 개개의 유물유적에 관한 것은 지역사(211-219)에 분류하되 다만 개개의 유물유적에 관한 것이라도 일국의 역사에 관한 유물유적은 일본사의 특정한 시대에 분류하도록 주기하여 9판에서의 시대와 지역의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불명확한 것을 지역이 시대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따라 개정하였다. 또한 문헌량을 고려하여 한국의 고고학(221.0025)과 중국의 고고학(222.0025)을 신설하여 두었다.

UDC의 경우에는 고고학 일반은 지리·전기·역사류의 처음인 902에 배정하고, 선사시대 유물유적은 선사시대사와 함께 903에, 역사시대 유물유적은 904에 배정하고 있다. 902의 고고학 일반은 고고학적 현장작업(902.2), 현장 고고학의 방법론 및 기법(902.3), 고고학에서의 기록법(902.4), 고고학에서의 연대결정법(902.6) 등 연구방법론이 배정되어 있다. 903 선사시대의 역사에는 그 시대의 유물유적을 함께 분류하도록 한 것으로 앞부분에는 특수보조표에 의해서 유적의 형태와 유형에

11)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Edition 23(Dublin : OCLC, 2011), Vol.3, p.891.

12)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제1권, p.907, 910.

13) もり・きよ 原編, 日本図書館協会分類委員会 改訂,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東京 : 日本図書館協会, 1995), p.76, 78.

14) NDC10版の検討試案, 2類, <<http://www.jla.or.jp/portals/0/html/bunrui/2rui.pdf>> [cited 2013.3.19]

따른 구분(903-4), 재질별 유물(903.01-903.08), 선사시대 문화유형(903'1) 등이 배정되고, 각종 인공물(903.2), 선사시대 주거지(903.3), 선사시대 정착지(903.4), 매장유적(903.5), 선사시대 돌 기념물(903.6), 예배장소(903.7), 묘 이외의 고의적 매장물(903.8) 등의 순으로 배정하였다. 904의 역사시대 유적은 고대·중세·현대의 유물유적과 인공물을 분류하는 곳으로 UDC의 조합식 원리를 사용하여 상관기호 콜론(:)으로 모든 주제나 분야를 조합하여 분류하도록 하였으며(예: 역사적 다리 와 그 유적 904:624.21, 역사적 건축 및 도구 904:72), 특정한 지역은 장소보조기호((1/9))를 조합하고, 시대별 구분은 시간보조표("...")를 조합하고, 재료별 구분은 일반 특성보조표(Table 1k)의 재료보조표인 -03을 적용하여 세분하도록 하고 있다.¹⁵⁾

CLC에서는 고고학과 유물유적에 대한 분류번호 배정을 역사·지리류(K) 아래 사학이론(K0) 및 각국사(K1-K7), 전기(K81) 다음인 K85-88에 배정하고 있다. K85에는 문물고고 일반을 배정하여 고고학(K851), 문장학(K853), 고고 방법 및 기술(K854)을 포함하고 있다. K86은 세계문물고고, K87은 중국문물고고, K883-887에는 각국 문물고고를 세계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하도록 하였다.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 중국문물고고의 경우 금석학(K870.5), 돈황학(K870.6) 등의 중국 특유의 관련 학문을 먼저 배정한 후 각 시대문물고고(K871), 각 지역 문물고고(K872)를 배정하였으며 나머지 K875-K879에는 특정한 테마 별로 나누어 K875 각종 용도별 기물, K876 각종 재료별 기물, K877 고문자 관련, K878 옛날 터 관련, K879 고고미술 등의 순으로 배정하고 있다.¹⁶⁾

이상의 주요 분류법에서의 고고학과 유물유적의 분류를 종합해 볼 때 분류법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선사시대 고고학, 지역별 고고학, 유물 유적의 분류위치와 관련된 문제로 요약된다.

1) 선사시대 고고학의 위치

- ① 고고학 일반 아래 - NDC, CLC
- ② 고대사 또는 선사시대사 아래 - DDC, KDC, UDC
- ③ 인류학 아래 - LCC

2) 지역별 고고학의 위치

- ① 고고학 일반 아래 - LCC, UDC, CLC
- ② 지역사 아래 - DDC, KDC, NDC

3) 유물 유적의 위치

- ① 관련 역사 아래 - LCC, DDC, KDC, NDC
- ② 고고학과 관련된 별도의 위치 - UDC, CLC

15)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Standard Edition(London : BSI, 2005), pp.891-892.

16) 國家圖書館 《中國圖書館分類法》編輯委員會 編, 中國圖書館分類法. 第五版(北京 : 國家圖書館出版社, 2010), pp.199, 230-23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사시대 고고학, 지역별 고고학은 고고학 일반 아래에 함께 배정되어 있는 경우가 반수 정도이고, 유물 유적의 분류위치는 주로 관련 역사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나 비교적 근래에 편성된 UDC와 CLC의 경우는 관련 역사와 분리하여 고고학과 관련된 별도의 위치에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KDC에서도 선사시대 고고학, 지역별 고고학 그리고 유물 유적의 분류위치를 고고학 일반에 통합하여 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고문서학과 고문서의 분류

LCC에서는 고문서학은 역사보조학을 모아 놓은 C류의 하위류인 CD에 기록학과 印章學과 함께 배정하여 앞부분인 CD1-511에 두고 있다. 고문서학의 세분은 정기간행물, 학회, 회의, 전집, 사전, 철학 및 이론 등 DDC의 표준구분에 해당하는 내용(CD1-69), 특별 관청의 관례(CD70-79), 儀式書(CD80-81), 고문서의 위조(CD87), 연구를 위한 고문서와 복제품 등의 컬렉션(CD91-392), 연구 및 지도법(CD501-511)으로 되어 있다. 연구를 위한 고문서와 복제품 등의 컬렉션(CD91-392)은 지역별로 나누어 세분하고 있다.¹⁷⁾

DDC의 경우 고문서학은 뚜렷하게 제시된 분류번호는 없으나 문헌정보학(020)내에 도서관, 기록관, 정보센터를 포괄하여 이들 기관의 관리(025.1) 아래의 특수자료 컬렉션의 관리(025.17)에 자료유형별로 세분하고 있다.¹⁸⁾ 따라서 고문서를 포함하는 수사본, 기록물, 희귀자료의 관리(025.171)에 고문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고문서학을 분류 할 수 있다. 실제로 K대학교도서관에서도 『서양 고문서학 개론』을 025.171에 분류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서 자체는 컬렉션의 경우 025.171에 분류하고 수사본의 경우는 091에 분류하며, 고문서의 목록, 분류, 색인은 025.241에, 서체학은 역사언어학(417.7)에 분류하게 된다.

KDC의 경우에는 일반 고문서학은 역사보조학 아래의 902.9에 분류한다. 한국, 중국, 일본, 동양, 서양의 사료로서의 고문서류는 한국의 고문서류가 911.0091에 별도로 나열되어 있고, 중국, 일본, 동양, 서양의 경우는 한국에서 세분된 것과 같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예, 한국고문서류 911.0091, 중국고문서류 912.0091, 일본고문서류 913.0091, 동양고문서류 910.091, 서양고문서류 920.091). 911.0091 아래의 주기에 고문서학은 902.9에 분류하도록 지시한 것을 보면 동서양과 각국의 고문서학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902.9에 함께 분류하는 것을 의도하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⁹⁾ 한편으로 고문서의 서지연구는 012(사본, 판본, 제본)에, 관리는 024.91(문서, 사본, 귀중서 관리)에 분류한다.

NDC의 경우에는 역사보조학으로서의 고문서학은 202.9에, 일본의 고문서학은 일본사의 역사보

17)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op. cit.*, pp.14-24.

18) Dewey, *op. cit.*, Vol.2, p.57.

19)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전계서, pp.908-911, 918, 922, 933.

조학 아래의 210.029에 배정하되, 고문서 자체는 사료와 함께 210.088에 분류하도록 하였다.²⁰⁾

UDC의 경우에는 역사보조학으로서의 고문서학은 930.2:003.074에, 서체학은 930.2:003.072에 분류하고 저술방법으로서의 고문서학은 003.074에, 서체학은 003.072에 분류하고, 수사본은 091 아래에 세분한다. 구체적인 고문서의 경우 해당 주제에 분류한 다음 형식공통보조표(Table 1d) 중 수사문서인 경우는 (0.032)를, 회귀문서인 경우는 (0.068)를 부가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²¹⁾

이상의 주요 분류법에서의 고문서류의 분류를 볼 때 LCC의 경우 연구를 위한 고문서와 복제품 등의 컬렉션(CD91-392)은 지역별로 나누어 세분하여 역사보조학 아래의 고문서학과 함께 배정하고 있는 점은 KDC의 개정 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기록학의 분류

LCC에서는 기록학의 저작은 역사보조학을 모아 놓은 C류의 하위류인 CD에 고문서학 다음(CD921-4280)에 분류하도록 배정하고 있다. 기록학 일반의 세분은 정기간행물, 학회, 회의, 전집, 명감, 사전, 철학 및 이론 등 DDC의 표준구분에 해당하는 내용(CD921-947), 언어별 기록학에 관한 일반저작(CD950-965), 수집, 평가, 디지털화 등의 특수 방법 및 기법, 특정 유형의 기록관, 건물, 연구 및 지도법(CD971-988), 시대별 저작, 아키비스트 전기(CD995-997) 등으로 되어 있다. 분류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록물 자체에 대한 전개는 생산자에 따라 대륙(유럽, 아시아, 아랍,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태평양 제도, 아메리카 등) 또는 국가별로 전개되어 있다(CD1000-4280). 대륙별로는 먼저 정기간행물, 학회, 연속간행물, 일반 저작, 일반 목록 등을 세분하고 지역내의 국가별로 세분하되 미국국회도서관의 입장에서 자료가 많은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등은 본표 자체에 국가, 지방, 종교, 학술, 가족 단위의 기록관으로 나라별 실정을 고려하여 세분되어 있다. 본표에 세분되어 있지 않은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규모에 맞게 세분할 수 있도록 분류번호의 범위만 정해 주고 구체적인 세분은 규모별 보조표에 따라 세분하도록 하고 있다.²²⁾ 기록물의 세분을 위한 보조표로는 29.5로 세분된 C1, 24로 세분된 C1a, 19.5로 세분된 C2, 16으로 세분된 C2a, 9.5로 세분된 C3가 있으며, 정부기관의 부처별 세분에 사용되는 C4, 미국의 각 주별 세분에 사용되는 C31 등이 있다.²³⁾ 한국(CD2250-2259.5)의 경우는 보조표 C3를 사용하여 0부터 9.5까지 세분하게 되어 있다.

DDC의 경우 기록학은 문헌정보학과 함께 020 아래에 분류한다. 기록학 일반은 020에, 기록관의

20) もり・きよ 原編, *op. cit.*, p.76, 78.

21)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op. cit.*, pp.17-18, 161, 184, 895.

22)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op. cit.*, pp.24-43.

23) *Ibid.*, pp.167-177, 209.

대외관계는 021 아래에, 물리적 시설물 관리는 022 아래에, 인사관리는 023 아래에, 기록관의 운영은 025 아래에, 특정 주제 전문 기록관은 026 아래에, 일반 기록관은 027 아래에 분류하도록 하였다.²⁴⁾

KDC의 경우에는 기록학 일반을 분류하기 위한 명시된 분류번호는 없고, 문서의 관리를 위한 번호 024.91과, 보존기록관의 경영 관리 등을 위한 026.99, 한국사료 아래에 다른 곳에 분류할 수 없는 각종 사적 기록류를 위한 911.0092를 배정하고 있을 뿐이다.²⁵⁾ 그리하여 도서관현장에서 「기록학 개론」을 024.91 또는 020에 분류하거나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 평가시스템」 등을 세분 없이 기록학 일반과 동일한 024.91에 분류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래 기록학이 학문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여 관련된 문헌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이들 문헌의 원활한 분류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UDC의 경우에는 역사보조학으로서의 기록학은 930.25 아래에 세분하여, 930.251에 기록 기법과 조직을, 930.253에 기록보관소와 콘텐츠를, 950.255에 기록 리스트와 목록을 배정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기록물의 관리는 025.171에 배정하고 있다.²⁶⁾

CLC에서는 기록학을 문헌정보학과는 완전히 분리하여 G27에 별도의 유목으로 배정하고 있다. G270에는 기록학 일반을, G271에는 기록관관리를, G272에는 기록물의 수집과 정리를, G273에는 기록물의 보관과 이용을, G274에는 기록물의 공포와 출판을, G275에는 각종 유형의 기록 작업을, G278에는 각 유형의 기록관과 기록실을, G279에는 세계 각국의 기록 사업을 배정하고 있다.²⁷⁾

이상의 주요 분류법에서의 기록학의 배정 위치는 LCC와 CLC에서처럼 문헌정보학과와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와 DDC에서처럼 문헌정보학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경우, KDC와 UDC에서처럼 부분적으로 문헌정보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진다. KDC에서 기록학을 어떻게 배정하여 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십진식 체계의 LCC와 CLC와는 다른 십진식 체계를 가진 KDC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류번호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미 기록학 관련 내용들이 문헌정보학 속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여러 측면에서 문헌정보학과 관련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DDC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4. 계보학과 계보자료의 분류

LCC에서는 역사보조학을 모아 놓은 C류의 하위류인 CS(1-3090)에 계보학을 배정하고 있다. 계보학 일반의 세분은 정기간행물, 학회, 회의, 전집, 명감, 사전, 전기 등 DDC의 표준구분에 해당하는

24) Dewey, *op. cit.*, Vol.2, pp.51-73.

25)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전게서, p.99, 103, 911.

26)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op. cit.*, p.895, 179.

27) 國家圖書館《中國圖書館分類法》編輯委員會編, *op. cit.*, pp.129-130.

내용(CS1-8), 언어별 계보학에 관한 일반저작(CS9-12), 특수한 취급, 청소년 저작, 대중적인 저작, 컴퓨터 네트워크 자원, 묘지기록 등(CS12-22)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계보 리스트(CS25-36)와 가족사(CS38-39)를 배정한 다음 분류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별 계보학과 계보자료(CS42-2209)와 개인 및 가족명(CS2300-3090)이 배정되어 있다.²⁸⁾ 지역별 계보학은 각 지역을 문헌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본표에 나열하거나, 20구분(C22)과 10구분의 보조표(C23)²⁹⁾를 사용하여 세분하도록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지역별 계보학을 미국(42-71), 영국의 잉글랜드(410-439) 등은 본표에 세분하였고, 프랑스(580-599), 이탈리아(750-769) 등은 20구분의 보조표(C22)에 따라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1330-1339)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10구분의 보조표(C23)에 따라 세분하도록 하고 있고, 쿠웨이트(1131), 수단(1697) 등과 같이 세분 없이 국가별로 나열만 한 것도 있다. 지역별 계보학의 세분을 위한 보조표는 DDC의 표준구분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나열한 다음, 계층별, 시대별, 유형별, 지방별로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가족사를 배정하여 두고 있다. 아울러 개인 및 가족명의 세분은 한국이나 민족에 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저작을 위한 번호(CS2300-2391)를 먼저 배정한 다음 특정 국가나 민족을 위한 번호((CS2395-3090)를 배정하고 있다. 특정 국가나 민족을 위한 개인이나 가족명의 세분은 문헌량에 따라 한 번호 내에서 세분되는 보조표(C24)³⁰⁾를 적용하거나, 10번호로 세분되는 보조표(C25)³¹⁾를 적용하여 세분한다. 예를 들면 스페인 민족의 개인이나 가족명(CS2740-2749)은 보조표 C25를 적용하고, 한국민족의 개인이나 가족명(CS3012)은 보조표 C24를 적용한다. 개인 및 가족명의 세분을 위한 보조표는 합집, 일반저작, 시대별, 이름, 성, 가족명, 특정 이름과 지방의 자모순 세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DDC의 경우는 계보자료를 920(전기, 계보학, 징표) 아래의 929에 계보학 일반, 가족사, 계보 자료원, 개인명, 묘지기록, 문장, 왕실·귀족·기사계급, 훈장·자필서명, 징표 및 신원의 형식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³²⁾

KDC의 경우에는 계보자료를 990(전기) 아래의 999(계보, 족보)에 7개 세목으로 지역구분하여 지역별 계보와 족보를 먼저 배정하고 다음으로 씨족·귀족·왕족과 문장 및 가문을 배정하고 있다.³³⁾ KDC의 경우 개별 족보는 999.1-7에 지역구분하여 국가별로만 구분하게 되어 있어 한국인의 성씨별 개별 족보는 999.11에 모두 분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999.11에 우리나라 모든 성씨의 족보가 집중되기 때문에 개별화의 문제가 따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의 족보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 족보만을 소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999.2-7까지의 번호는

28)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op. cit.*, pp.132-147.

29) *Ibid.*, pp.198-200.

30) *Ibid.*, p.201.

31) *Ibid.*, p.202.

32) Dewey, *op. cit.*, Vol.3, pp.885-888.

33)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전계서, p.974.

거의 사용되지 않는 번호이다.³⁴⁾

UDC의 경우에는 계보학을 929.5에 배정하여 이론적 계보학, 특수 계보학 및 가족사, 계보 자료 원, 비문과 묘비명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³⁵⁾

NDC에서는 계보학을 288(계보, 가족사, 황실)에 배정하여 성씨, 계보, 가족사, 황실, 紋章, 旗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³⁶⁾

5. 전기(傳記)와 전기적 자료의 분류

LCC에서는 역사보조학을 모아 놓은 C류의 하위류인 CT(21-9999)에 전기를 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분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 또는 문학형식으로서의 전기(CT21-22), 자서전(CT25), 전기적 자료의 역사와 전기 작가의 삶(CT31-83), 연구 및 지도법(CT85-86), 언어별 총전(CT88-205), 초상화(CT206), 국가별 전기(CT208-3150), 특수 전기(CT3200-9999)를 배정하고 있다. 주제별 전기는 해당 주제 아래에 세분되어 있고, 특수 전기 아래에는 여성, 학술원 회원, 학자, 석학, 모험가, 기인, 구두쇠 등의 전기를 배정하고 있다.³⁷⁾ 국가별 전기는 문헌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본표에 나열하거나, 19구분(C26), 9구분(C27), 7구분(C27a), 1구분(C28) 등의 보조표³⁸⁾를 사용하여 세분하도록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국가별 전기는 미국(210-275)과 캐나다(280-310) 등은 본표에 세분하였고, 러시아(1200-1218)와 스웨덴(1310-1328) 등은 19구분의 보조표를, 한국(1840-1848)과 일본(1830-1838) 등은 9구분의 보조표를, 대만(1829-1829.8)은 1구분의 보조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따위이다.

DDC의 경우는 전기를 920 아래에 자서전, 일기, 회고록, 서한 등을 포함하여 배정하고 있다. 시대, 지역, 그룹이나 주제에 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총전은 920.02에 배정하고, 주제가 한정되지 않은 지역별 총전은 920.03-.09 아래에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하고(예,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총전 920.042),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은 각전과 성별 총전은 920.7 아래에 세분되어 있다(예, 남성 전기 920.71 ; 여성 전기 920.72). 주제별 전기는 각전과 총전을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주제에 표준구분표의 092를 추가하여 분류하도록 하고(예, 화학자 전기 540.92), 별법으로 920.1-928.9(920.7 제외)에 세분된 번호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였다(예, 화학자 전기 925.4). 또한 주제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전기를 구분하지 않고 각전은 92 또는 B, 총전은 92 또는 920으로 분류하거나, 각전의 경우 주제별 전기도 남성의 전기는 920.71, 여성의 전기는 920.72에 분류할

34) 이창수, “계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9), p.269.

35)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op. cit.*, p.894.

36) もり・きよ 原編, *op. cit.*, p.110.

37)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op. cit.*, pp.148-166.

38) *Ibid.*, pp.203-208.

수 있도록 별법을 제시하고 있다.³⁹⁾ 주제별 전기를 해당 주제에 분류한 후 표준구분표 092에 따라 세분하는 경우 092 자체에는 각전을, 0922에는 그 주제의 일반 총전과 지역별 총전을, 0923-0928에는 인종, 민족, 성별, 나이별, 인척, 사회적 계층, 장애, 질병, 재능, 종교 등의 특정 그룹별 총전을, 0929에는 동식물의 전기를 배정하고 있다.⁴⁰⁾

KDC의 경우에는 전기를 990 아래에 일기, 일화집, 언행록, 인물, 평론, 추도록, 서한, 초상 등을 포함하여 배정하고 있다. 지역별 총전은 991-997에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하고, 주제별 전기는 각전과 총전을 막론하고 998 아래에 100-990과 같이 강목이상으로 주제구분하거나(예, 정치인 전기 998.34), 해당 주제에 분류한 다음 표준구분표 099를 추가하여 세분하도록 하였다(예, 정치인 전기 340.99). 또한 주제별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류(000)에 속한 주제에 관련된 것들로서 990.9 특수전기 아래의 서지학자(990.91), 사서(990.92), 백과사전편찬자(990.93), 기자·편집인·언론인(990.97), 출판업자·서적상(990.98) 등의 전기도 있다.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것으로 여인(990.94), 아동(990.95), 아카데미회원(990.96), 기인(990.99) 등의 전기는 특수전기(990.9) 아래에 세분하여 두었다.⁴¹⁾

UDC의 경우에는 주제별 전기의 경우 929에 상관기호 콜론(:)을 사용하여 세분하거나(예, 화가 전기 929:75), 역으로 주제를 우선하여 조합하여 분류한다(예, 화가 전기 75:929). 주제의 전기적 제시는 그 주제에 형식보조표(1d)의 (092)를 추가하여 분류할 수도 있다(그림의 전기적 제시 75(092)). 국별 시대별 총전은 929에 장소보조표(1e)와 시간보조표(1g)를 추가하여 분류하고(예, 18세기 프랑스 위인전 929(44)“17”), 각전은 UDC 이외의 기호법에 의한 세분(1h) 중 문자(A/Z)를 사용하여 세분한다(예, Hugo Grotius 전기 929Grotius).⁴²⁾

III. KDC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역사보조학과 관련되는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실제 도서관에서의 분류표를 적용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KDC5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1. 고고학과 유물유적의 통합

39) Dewey, *op. cit.*, Vol.3, pp.879-885.

40) *Ibid.*, Vol.1, pp.206-208.

41)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전계서, pp.972-974.

42)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op. cit.*, p.894.

KDC5의 경우 고고학의 일반적인 저작은 역사보조학 아래의 902.5에, 동양고고학은 910.025, 서양고고학은 920.025, 한국고고학은 911.0025, 중국고고학은 912.0025, 일본고고학은 913.0025에 분류하도록 하여 고고학 일반에 관한 저작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또한 시대나 지역별로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고고학적 유물유적은 해당하는 시대나 지역의 역사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서 고고학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고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룹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고고학과 관련된 자료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별 고고학 일반이나 지역이나 시대에 분산되어 있는 유물유적을 고고학(902.5) 아래에 통합하여 분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유물유적 일반은 902.5에, 그 시대별 유물유적은 세계사의 시대구분(909.1-.6)의 마지막 숫자와 같이 구분하되 0을 앞세우도록 하고, 지역별 고고학과 유물유적은 902.51-.57에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하고, 그 시대별 유물유적은 해당 지역의 역사에서의 시대구분과 같이 세분하도록 한다. 이렇게 할 경우 902.54에 있는 금석학은 902.58로, 902.56에 있는 錢貨學은 902.59로 옮기도록 한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902.5 고고학

유물(석류, 갑골류, 토류, 소도류, 금속류 등)과 유적(패총, 고분, 동혈 등) 및 그 조사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각 시대별, 지역별 고고학에도 역시 관련 유물과 유적 및 그 조사보고를 포함한다.

.501-.506 시대별 고고학

909.1-.6 세계시대사 기호 중 909 다음의 시대구분 기호를 0을 앞세워 세분한다. 예 : 선사시대 고고학 902.501 : 고대의 유물과 유적 902.502

.51-.57 지역별 고고학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하되, 지역 내에서 추가적으로 시대구분이 필요하면 0을 앞세운 해당 지역의 시대사 구분과 같이 세분한다. 예 : 동양고고학 902.51 : 한국 선사시대의 유물과 유적 902.51101

.58 금석학

.59 전화학

관련 분류의 예를 KDC5와 개정안을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고고학 관련 문헌의 분류 예

서명	KDC5	개정안
고고학의 세계	902.5	902.5
구석기시대의 고고학	909.1	902.501
고인돌과 거석문화 : 세계	909.1	902.501
동북아시아 고고학	910.025	902.51
한국고고학개설	911.0025	902.511

한반도의 고분	911.0025	902.511
낙랑시대의 유적	911.023	902.511023
삼한 고고학 연구	911.024	902.511024
충주 중원지역 출토 와당	911.72	902.51172
제주도 고고학 연구	911.99	902.51199
중국 고고학의 길잡이	912.0025	902.512
은허기물 : 갑편, 도기	912.022	902.512022
만리장성	912.1	902.5121
일본의 고고학	913.0025	902.513
일본 고대 유적의 연구	913.02	902.51302
大阪市平野區長原遺跡發掘調査報告	913.28	902.51328
巨石 遺跡 스톤헨지의 秘密	924.65	902.52465
러시아의 고고학 : 연구현황과 과제	929	902.529
이집트 고고학	931.1	902.5311
투탕카멘의 무덤	931.102	902.531102
마야 : 잃어버린 도시들	944	902.544
나스카 유적의 비밀	955	902.555
이스트섬 : 바위 거인들의 비밀	967.16	902.56716

실제 도서관에서의 KDC5를 사용한 고고학 관련 자료의 분류 실태를 조사하여 보면 시대나 지역 별로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고고학적 유물유적은 해당하는 시대나 지역의 역사에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고학 일반(902.5)이나 동양고고학(910.025), 한국고고학(911.0025), 중국고고학(912.0025), 일본고고학(913.0025) 등과 함께 분류한 경우가 허다하며, 그 역사와 함께 분류한 경우에도 관련 역사자료와 혼재되어 개가식 열람 방식에서의 브라우징에 의한 검색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고문서학과 고문서의 통합

KDC5의 경우에 고문서학은 동서양과 각국의 고문서학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역사보조학 아래의 902.9(고문서학)에 분류하고, 고문서의 서지연구는 012(사본, 판본, 제본)에, 관리는 024.91(문서, 사본, 귀중서 관리)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동양, 서양의 사료로서의 고문서류는 한국의 고문서류가 911.0091에 별도로 나열되어 있고, 중국, 일본, 동양, 서양의 경우는 한국에서 세분된 것과 같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문서학과 관련 고문서류가 분리되어 있고, 동서양과 주요 3개국 이외의 고문서류를 분류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LCC의 경우를 참작하여 고문서류는 902.91-.97에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하여 고문서학과 고문서류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 등이 고문서의 내용별로 제시한 ‘한국고문서분류표(안)’⁴³⁾을 근거로 전개한 한국의 개별 고문서류(911.00911-.00919)는 902.9111-.9119로 옮겨서 배정하고 다른 국

가의 고문서류 분류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02.9 고문서학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고문서류에 관한 저작은 여기에 분류한다. 도서관에 따라 한국을 제외한 지역의 고문서류는 902.9111-.9119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예 : 영국의 왕실문서 902.9241

.91 동양

.911 한국

조서, 윤음, 전교, 유시, 교지, 주소, 봉사, 계문, 통문, 품목, 수표, 입안, 원문 및 일괄문서를 포함한다.

.9111 국왕, 왕실문서

교령, 보고, 책봉, 의례, 공신, 궁궐제도 등을 포함한다.

.9112 정치, 행정문서

조직, 운영, 임면, 명령, 보고, 외교, 국방, 포상 등을 포함한다.

(중략)

.9119 기타문서

.912 중국

.913 일본

.914-.97 기타 지역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관련 분류의 예를 KDC5와 개정안을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고문서학 관련 문헌의 분류 예

서명	KDC5	개정안
고문서학	902.9	902.9
한국 고문서학	902.9	902.911
고문서집성(한국)	911.0091	902.911
고문서 : 국왕왕실문서(한국)	911.00911	902.9111
토지문기(한국)	911.00914	902.9114
고문서 : 호적류(한국)	911.00915	902.9115
고문서 : 사인문서 소지류(한국)	911.00918	902.9118
法藏敦煌西域文獻	912.00917	902.9127
일본 고문서학	902.9	902.913
일본 고대문서의 연구	913.0091	902.913
서양 고문서학 개론	902.9	902.92

43) 이창수, 이해준, 배영환, “한국고문서분류표(안),” 고문서 정리 표준화안 연구결과보고서(韓國古文書學會, 2003), pp.47-95.

3. 기록학과 문헌정보학의 완전한 통합

KDC5의 경우 기록학 일반을 분류하기 위한 명시된 분류번호는 없으나, 문서의 관리를 문헌정보학 아래의 024.91에, 보존기록관의 경영 관리 등은 026.99에 분류하도록 한 것을 볼 때 DDC23에서와 같이 기록학을 문헌정보학과 함께 분류하도록 암시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류항목이나 주기가 없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도서관현장에서 『기록학개론』을 024.91 또는 020에 교차분류하거나 기록학의 세부영역을 구분 없이 기록학 일반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DDC23에서 기록학을 문헌정보학과 함께 배정한 것과 같이 KDC5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기록학을 문헌정보학의 관련 분류항목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해당 분류항목마다 기록관이나 기록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주기를 통한 안내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문헌정보학(020) 아래 포함된 모든 도서관이라는 용어는 정보센터와 기록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도록 주기를 하여 기록학의 관련 주제는 문헌정보학과 완전히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지면 관계상 대표적인 개정 사항 몇 개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20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정보학, 기록학을 포함한다.

020 아래에 속하는 모든 문헌정보학이란 용어는 도서관학, 정보학, 기록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도서관이란 용어는 정보센터와 기록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한다.

023.2 도서관 직원, 사서직, 기록관리직

서서직 및 기록관리직 윤리, 직위·직종 등을 포함한다.

026.1 국립도서관

각국의 국립도서관 및 국가기록원은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예 : 국립중앙도서관 026.111 ; 국립기록관리처(NARA) 026.142

026.99 사료관

관련 분류의 예를 국립중앙도서관의 KDC5와 개정안을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기록학 관련 문헌의 분류 예

서명	KDC5	개정안
기록관리론	024.91	020
기록학 용어 사전	024.91	020.3
중국의 기록관리	024.91	020.912
기록관리법령 따라 읽기	024.91	021.311
기록관 경영	024.91	023
기록관리 전산화	024.91	023.3

기록물평가시스템	024.91	024.1
기록보존의 실제	024.91	024.6
사진기록물에 대한 연구	024.91	024.96
기록정보서비스	024.91	025.2
국가기록원 : 대한 사람, 대한 역사, 기록으로 보전하세	024.91	026.111
미국여성기록관에 대한 연구	024.91	026.9337
대학기록관의 경영	024.91	027.6

4. 성씨와 그 족보의 통합

KDC5의 경우 999.11에 우리나라 모든 성씨의 족보가 집중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의 족보는 거의 없기 때문에 999.2-.7까지의 번호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하여 '999.8 씨족, 귀족, 왕족' 아래의 세목을 '999 계보, 족보' 아래로 상향시킨 기존의 필자의 안⁴⁴⁾을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99 계보학

999.1-.99의 각 분류기호는 한국의 경우 지역구분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도서관에 따라 한국 이외의 경우는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예 : 성산이씨 족보 999.1 : 영국 왕가 999.724

1 성씨와 그 족보

성의 자모순 그리고 동성은 본관 또는 분파명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2 가족 및 가문의 역사적 기록

3 묘지, 비명

기진록, 지장록을 포함한다.

5 기타 계보적인 제자료

6 귀족, 화족

문무관을 포함한다.

7 왕가, 왕족

8 제왕, 왕비

9 문장, 가문

.99 국기, 휘장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씨와 그 족보를 999.1에 통합함으로써 도서관 현장에서의 분류작업의 혼란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용자로 하여금 성씨와 그 관련 족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999의 분류항목 명칭을 '계보, 족보'에서 '계보학'으로 변경하여 계보학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었

44) 이창수, 전계논문, pp.276-277.

으며, 주기를 보완하여 한국의 경우는 지역구분 없이 간략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도서관 현장에서 한국의 성씨별 족보를 분류한 예를 조사하여 보면 999.11(한국인 족보)에 분류하지 않고 999.81(성씨, 씨족) 아래에 분류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혼란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에서 2013년 6월 28일에 999.81로 검색하여 본 결과 총 249건이 검색되었는데 그 중 약 23건이 999.11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상당수는 999.82(가사, 가전)에 분류되어야 할 성격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안에서는 999.2에 가족 및 가문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성씨 및 그 족보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관련 분류의 예를 KDC5와 개정안을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계보학 관련 문헌의 분류 예

서명	KDC5	개정안
한국성씨대관	999.8111	999.1
한국인의 족보	999.11	999.1
김해김씨과보	999.11	999.1
진주강씨학사공과가승	999.11	999.1
성산이씨정언공과보	999.11	999.1
中國姓氏源流史	999.8112	999.112
中國族譜研究	999.12	999.112
한국의 명가 : 나주 본관편	999.8211	999.2
高麗 墓誌銘 集成	999.8311	999.3
朝鮮初期의 駙馬	999.8611	999.6
新羅金氏王孫錄	999.8711	999.7
올바른 태극기 해설	999.9911	999.99

5. 총전 분류의 명확화

KDC5의 경우에 지역별 총전은 991-997에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하고, 주제별 총전은 998 아래에 100-990과 같이 강목이상으로 주제구분하거나 해당 주제에 분류한 다음 표준구분표 099를 추가하여 세분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총전과 각전의 구분을 위한 기준이 분류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도서관 현장에서 혼선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 할 수 있는 기준은 KDC 제4판의 해설판에서 “4판에서는 2명까지는 각전으로 보고 3명이상은 총전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2명으로 된 각전은 뚜렷하게 두 번째 인물을 중심으로 쓰여지지 않는 이상 첫 번째 인물의 전기로 분류한다”⁴⁵⁾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도서관에 따라서는 3명까지를 각전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발견

45)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 編, 改正 第4版 韓國十進分類法解說(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97), p.287.

되어 총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분류표 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DDC23의 경우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는 한 동일 분야의 2명에 관한 전기도 총전(collected biography)으로 취급하고 있다.⁴⁶⁾ 사실 총전을 2명이상으로 하느냐 3명 이상으로 하느냐는 단 1명의 차이로 각전은 개인별 전기라는 의미로 볼 때 KDC의 경우에도 2명이상을 총전으로 보고 분류표상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주제별 전기를 주제에 분류한 다음 표준구분 099를 적용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총전을 위하여 DDC23에서 처럼 0992를 세분할 필요도 있다(예, 정치인들의 전기 모음 340.992). 이 경우 주제별 전기의 대부분이 각전이므로 개인별 전기는 표준구분 099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주기한다.

IV. 결론

지금까지 주요 문헌분류법에서의 역사보조학 분야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도서관 현장에서의 KDC의 적용 상황을 조사해 본 후 이를 바탕으로 고고학, 고문서학, 기록학, 계보학, 전기 분야를 중심으로 KDC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고학 일반에 관한 저작과 고고학적 유물유적이 해당하는 시대나 지역의 역사에 분리되어 있던 것을 세계적인 유물유적 일반은 902.5에, 그 시대별 유물유적은 세계사의 시대구분(909.1-.6)의 마지막 숫자와 같이 구분하되 0을 앞세우도록 하고, 지역별 고고학과 유물유적은 902.51-.57에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하고, 그 시대별 유물유적은 해당 지역의 역사에서의 시대구분과 같이 세분하도록 함으로써 고고학과 유물유적을 통합한다.

둘째, 고문서학과 관련 고문서류가 분리되어 있고, 동서양과 주요 3개국 이외의 고문서류를 분류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고문서류를 902.91-.97에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하여 고문서학과 통합하고, 한국고문서학 아래 902.9111-.9119에 주제별 고문서류를 배정하고 이를 다른 국가의 고문서류 분류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미 기록학은 관련 내용들이 문헌정보학 속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여러 측면에서 문헌정보학과 관련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DDC23에서처럼 문헌정보학 아래에 완전히 통합하도록 한다.

넷째,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의 족보는 거의 없기 때문에 999.2-.7까지의 번호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하여 '999.8 씨족, 귀족, 왕족' 아래의 세목을 '999 계보, 족보' 아래로 상향시키고, 성씨와 그 족보를 999.1에 통합함으로써 도서관 현장에서의 분류작업의 혼란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용자도 하여금 성씨와 그 관련 족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46) Dewey, *op. cit.*, Vol.1, p.17.

다섯째, 총전과 각전의 구분을 위한 기준이 분류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도서관 현장에서 혼선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DDC23에서처럼 2명 이상을 총전으로 분류표상에 명시하고, 주제별 전기를 주제에 분류한 다음 표준구분 099를 적용하는 경우 총전을 위하여 0992를 적용한다.

참고문헌

- 김자후. “KDC 5판 기초법학 부문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12), pp.5-22.
- 김정현.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의류학 분야의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12. 9), pp.101-120.
- 박재혁, 김비연. “통계학의 학문적 특성에 따른 KDC 문헌분류의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3. 6), pp.399-422.
- 여지숙, 공성훈, 오동근. “KDC 제5판 건축학 분야 전개의 개선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2호(2013. 5), pp.359-376.
- 이창수. “계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9), pp.257-279.
- 한경신. “한국십진분류법 한국음악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12), pp.297-316.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 編. 改正 第4版 韓國十進分類法解說.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97.
- 國家圖書館 《中國圖書館分類法》編輯委員會 編. 中國圖書館分類法. 第五版. 北京 : 國家圖書館出版社, 2010.
- もり・きよし 原編, 日本圖書館協會分類委員會 改訂.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5.
-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Standard Edition. London : BSI, 2005.
- Chan, Lois Mai. *A Guide to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5th ed. Englewood, Cold. : Libraries Unlimited, Inc., 1999.
-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Edition 23. Dublin : OCLC, 2011.

- Kumar, Krishan.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ed. 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1981.
-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2008 ed.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2008.
-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D-DR. History(General) and History of Europe*. 2011 ed.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2011.
-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DS-DX. History of Asia, Africa, Australia, New Zealand, etc.* 2008 ed.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2008.
-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E-F. History, America*. 2011 ed.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2011.
- Maltby, Arthur.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5th ed. London, Andre Deutsch, 1975.
- Merrill, William Stetson. *Code for Classifiers: Principles Governing the Consistent Placing of Books in a System of Classification*. 2nd ed.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39.
- Parkhi, R.S. *Library Classification : Evolution of a Dynamic Theory*.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197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ahn, Kyungshin. "A Study on the Korean Music Schedules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4(Dec. 2012), pp.297-316.
- Korean Library Association, ed.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5th ed.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9.
- Korean Library Association, ed.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4th Edition : A Study Manual*.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97.
- Kim, Ja-Hoo. "A Study on the Developing Modifications of KDC 5th ed. in Jurisprudence Fiel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4(Dec. 2012), pp.5-22.
- Kim, Jeong-Hyen. "The Improvements of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in the 5th Edition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3(Sept. 2012), pp.101-120.

- Lee, Changsoo.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Genealogical Materi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3, No.3(Sept. 2002), pp.257-279.
- Mori, Kiyoshi, ed. *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Newly rev. 9th ed. Tokyo : Japan Library Association, 1995.
- National Library of China, ed. *Chinese Library Classification*. 5th ed. Beijing : National Library of China Press, 2010.
- Park, Jae Hyeok, Kim, Bee Yeon. "Suggestions for KDC Improvement According to Academic Characteristics of Statistic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4, No.2(June 2013), pp.399-422.
- Yeo, Ji-Suk, Kong, Song-Hoon, Oh, Dong-Geun. "Improvements and Modifications of the Subject, Architecture Engineering, in the 5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7, No.2(May 2013), pp.359-376.